

UAM,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하성욱

스마트카 'TALK'

최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자율 비행 AAM과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eVTOL)의 개발은 UAM의 미래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및 제도적 체계이다.

정부는 UAM의 실용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비행 고도 및 경로제한의 UAM 비행 규제, 공역 관리, 안전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신속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모호하여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UAM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더불어, 규제 완화

는 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DJI와 같은 드론 제조사들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법 제도가 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은 UAM에 대한 접근 방식이 더욱 체계적이지만, 각국 간의 규제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럽연합의 EASA(유럽항공안전청)는 UAM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각 국가의 법 제도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때,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UAM 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제도·인증·실증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FAA와 유럽 EASA 수준의 선제적 인증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기체 안전성·운항 기준·소음 규제·도심 인프라 기준을 포함한 표준화된 국내 UAM 인증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자체와 더욱 확대된 실증사업을 추

진해야 한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 시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또 UAM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국산화가 요구된다. 전동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배터리 안전 기술,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Avionics) 등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증 중심의 R&D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UAM을 단순한 미래 교통수단이 아닌 새로운 항공 산업 생태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UAM 기술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단위의 강력한 규제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중국의 유연한 접근 방식과 유럽의 체계적인 규제 체계 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다 개선된 법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R&D에 투자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한국 UAM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UAM의 미래는 법과 제도의 유연성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통찰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KASA 회장

신뢰로 버텨야 할 때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가전업체가 수요 침체와 원자재·부품 비용 부담이 겹치며 어려운 업황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가전 기업들이 외형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수익성 방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올해는 본격적인 수요 회복보다는 '버티기 싸움'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V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TV·가전 사업에서는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LG전자 역

시 TV등 디스플레이 제품 수요 부진과 마케팅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 사업본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단순한 수요 둔화에 그치지 않는다. 샤오미, 하이센스,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경쟁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더욱이 샤오미는 단독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하며 브랜드 노출에 적극적이다. 과거 '가성비 브랜드' 이미지에 머물던 중국 가전 기업들이 이제는 디자인과 기능 측면에서도 빠르게 개선된 제품을 내놓으며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남아 있다.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평가와 달리 보안·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쉽게 사라지

지 않고 있다. 스마트TV와 가전이 개인 정보와 생활 데이터를 다루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가전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다.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중국 업체들과 맞붙기보다는 신뢰·품질·사후 서비스·보안 역량 등에서 차별화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어려운 연합 속에서 살아남는 힘은 단순한 판매량이 아니라, 얼마나 탄탄한 브랜드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브랜드 신뢰를 지키면서 수익성을 방어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누가 더 싸게 파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1월 2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조직의 일에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잘 살펴라. 48년생 이직은 한 번 더 생각하자. 60년생 신경성 질병으로 고생하니 건강을 생각. 72년생 속 보이는 행동은 자제를, 84년생 전날에 뿌린 씨앗이 좋은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소

37년생 직장이나 밖에서 이성에게 한눈팔지 않도록. 49년생 생각 없이 한 말이 원수가 될 수. 61년생 여름 더위에 활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외출을 삼가야. 73년생 동료의 도움으로 어렵던 일 해결. 85년생 조심이니 화재보험을.



호랑이

38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집안에 재물이 들어온다. 50년생 첫째신용으로 주변을 개선하라. 62년생 영업직장에서 피부리지 않도록. 74년생 일이 계속 이어지니 자부심도 높아진다. 86년생 지혜를 나눠 공유하니 주변의 존경이 따른다.



토끼

39년생 회를 내면 나만 손해이다. 51년생 능력이 안 되면 제발 성실하길라도 해라. 63년생 이성과 불화의 해결책은 헤어지는 것뿐. 75년생 열 사람이 다 자신의 마음에만 들 수는 없다. 87년생 너무 자부심이 지나치니 혼자 피곤하다.



용

40년생 바를 가는 곳에 실이 가니 원만함이 요구된다. 52년생 매매시 상대방의 속임수를 주의. 64년생 변명보다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자. 76년생 배우자에게 성실함을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을. 88년생 일 때문에 먼 여행을 해야.



뱀

41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여 불화가 이어진다. 53년생 아침부터 행운이 찾아온다. 65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77년생 이웃과 한 가지 이익을 두고 다툼이 발생. 89년생 고집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니 신중하라.



말

42년생 시간을 쪼다 보니 일이 산더미로 쌓임. 54년생 동료와의 불화가 있으니 양보하라. 66년생 이득을 위해 우기지 말고 질서를 존중. 78년생 재물이 목표였으나 나만 혼자 남아 허망. 90년생 즐거움으로 인해 다소 과한 지출이 예상.



양

43년생 꼼꼼함이 문제해결에 도움 된다. 55년생 적극적인 행동과 운세가 행운을. 67년생 사고가 있으니 일찍 귀가하는 것이 상책이다. 79년생 삼재팔난이니 초하루 기도를 해보는 것도. 91년생 남의 일에 참견하려거든 이성적으로 하여야.



원숭이

44년생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56년생 친구 따라가다 손해를 보니 경거망동 주의. 68년생 늦은 외출은 자제. 80년생 다단계에서 만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듯. 92년생 서두르지 말고 내부 문제를 들여다보라.



닭

45년생 방심하지 말고 급할수록 천천히. 57년생 현재의 환경과 동료들을 소중히 여겨야. 69년생 대표라도 다수의 의견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81년생 등을 돌린 이성에게 연연하지 않도록 하자. 93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하니 산행이라도.



개

46년생 성실한 노력이 승부수다. 58년생 부동산에서 소식이 온다. 70년생 조금은 힘에 부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82년생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성실함을 개선해야 외면 받지 않는다. 94년생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다 큰코다친다.



돼지

47년생 새로운 변화가 오지만 쓸데없는 참견은 미움을 산다. 59년생 고만하던 일이 해결된다. 71년생 오후 음주는 하지 않아야. 83년생 삼재이니 재물 문제는 관음기도 발원으로 해보라. 95년생 감언이설의 증후적인 판단은 손실로 이어진다.

김상회의四季

황금과 다이아몬드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대부분이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거의 채굴이 되지 않으나 수정은 많이 난다. 수정은 여기저기 많기에 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가치가 크지 않다. 몹시도 귀하게 여겨지던 그리하여 황제와 왕의 전유물로 여기던 비취나 옥도 지금은 조금 값나가는 정도일 뿐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보석도 시대가 발전하니 보석이 아니라 그냥 돌에 비유될 만큼 가치가 하락한다. 보석이 보석인 이유는 희소성 때문인데, 희소성이 사라지고 나면 그 가치가 낮아지니 돌에 비유하게 된다. 요즘 다이아몬드가 그 격이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화인 007 시리즈 중에 '다이아몬드여 영원히' (Diamond Forever) 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보석 중의 보석이었던 다이아몬드의 시대도 저무는 중이다. 인공적으로 제조해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실제 다이아몬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바로 '랩 다이아몬드'를 말함이다.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Laboratory)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인공 다이아몬드라는 편견도 있었지만, 문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 광학적으로 100% 같다는 것이 밝혀지자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채굴로 국가의 부를 이루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곳은 과거보다 낮아진 수익으로 걱정이 커갈 것만 같다. 그런데 금은 아직도 제조가 불가능하다. 중세 때 연금술은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금이야말로 '골드 포에버'가 되어 황금만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금 채굴 금 광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금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며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값은 보란 듯이 수직으로 상승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루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7
	3						6
	9			1		5	4
2	8					6	1
1	6		9			2	
3						7	
8			4				9

				2	3	7		6
		4						
			9	4				1
				8			1	9
8	9			3				
1				5	2			
							2	
3		2	6	9				